

문화



창작국악 무대로 초대

17일 정기연주회, 빛고을시민문화관

창작 국악단 '도드리' 13주년 정기 연주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단장 김재섭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국악 창작곡들이 연주된다.

특히 연주 레퍼토리 중 국악관현악곡 '빛고을 스토리' (작곡 윤명원), '蓮정지우' (작곡 이금석)은 도드리가 작곡가에게 위축한 곡이다. 또 김산우·윤진우씨가 들려주는 국악가요 '꽃은지고', '아리요'도 이번 연주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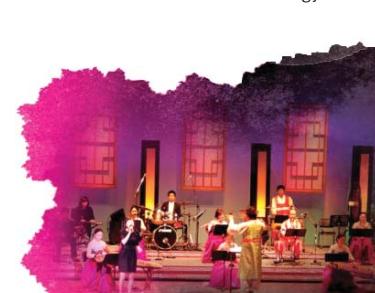
소금과 가야금, 신디사이저, 첼로가 어우러진 'Bimbap', 배장희씨와 법능스님이 만든 국악가요 '강물처럼'

'못난이 아리랑'도 만날 수 있다.

또 민요 '아리랑'을 재즈적 색채를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템포러리 아리랑'과 '화이트크리스마스', '징글벨' 등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려준다.

김종일·이영희·홍운진·김현무·박현정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670-79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문화 꾸준히 확대... 중앙 넘어설 것

문화부, 2011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발표

내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스마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지역문화가 중앙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 단위 문화재단이 활성화되는 등 문화정책과 지원제도에서 지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지역문화 예술축제의 국제화·전문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주 이전 등과 더불어 지역문화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 전시 같은 '착한 예술'이 대세를 이루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QR코드가 확산하며 프로 작가 수준의 전문지식과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갖춘 '크

레슈머' (Creator+Consumer)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713만명에 이르는 '베이비 블'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인구 규모와 높은 소득 수준, 소비력을 앞세워 문화계의 새 주역으로 떠오르고 주한 외국인들로 인해 진정한 다문화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문화부는 내다봤다.

또한, 다국적 문화합작이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각국의 문화재 흰수, 세계문화유산 등 재 노력 등 문화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에도 ▲전자책 보급 확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력육성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도 10대 트렌드에 포함됐다.

이번 결과는 문화예술 전문가 대상 텔파이 조사(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문제 해결이나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작자: 김대성 기자

제작자: